

합격기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정 선 아

- 1987년 4월 생
- 수원 동우여자고등학교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법대 재학 중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가 고시계에 합격기를 올릴 만큼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어서 합격기를 부탁받았을 때 다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수험생활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혹은 시험 준비에 있어 보완점을 찾고 개선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II. 1차 합격의 기쁨, 재시 불합격의 아픔

1. 2010년 1차 합격

2008년 7월부터 준비하여 2009년 2월에 처음 1차 시험을 치른 결과 근소한 차로 아쉽게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자 발표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크게 상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학기를 다니고 다시 휴학을 하여 7월부터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법은 처음 1차를 준비할 때부터 김형배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했었고, 부족한 판례나 내용을 보충하면서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따로 기본강의는 듣지 않았고, 다만 학교에서 민법총칙부터 채권각론까지 모두 수강했었기 때문에 그 때 공부하던 자료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법을 1회독 하는 데 7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민법이 끝난 직후 바로 형법을 공부했습니다. 형법요론(신호진)을 가지고 공부했으며, 처음 1차를 준비할 때 강의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본서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다시 책을 보는 데 보다 수월하고 이해력이 풍부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법의 경우 총론 부분을 기본서를 보면서 따로 노트 정리를 해 두었고, 형법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는 시간에 항상 보고 다녔습니다. 각론을 공부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외워두어야 하는 사항, 스스로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헛갈리는 판례 등을 수첩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을 1회독 하는 데 8월부터 시작해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8월의 나머지 기간 동안 헌법을 공부했습니다. 처음 1차를 준비할 당시 강의테이프를 들으면서 헌법(황남기) 기본서를 정리해 두었고, 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헌법의 경우 처음 1차를 준비할 때 판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자,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도표화하고 정리하여 워드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판례를 공부할 땐 그 자료만 보았습니다. 이 자료도 헌법을 공부하는 동안 통학하는 시간에 항상 보고 다녔습니다. 헌법을 1회독 하는 데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헌민형 각 회독 기간에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은 조문과 기출문제였습니다. 기본서를 보면서 항상 법전을 독서대에 펼쳐 두고 공부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부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고 해설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하여 해설을 꼼꼼하

게 하고 스스로 판례를 찾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이후 진모시즌에서 각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론, 판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 진모시즌에는 1회독 했던 시즌과 같은 방법으로 민-형-헌 순으로 공부했고,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하면서 민법, 형법의 각 진도별 모의고사를 지원받아 혼자 풀고 해설하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선택과목(국제거래법)의 경우 추석 기간 동안 동영상강의를 통해 공부하였고, 12월 헌법이 끝나는 시즌부터 국제거래법의 조문을 매일 보고, 최근 3년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진모 시즌이 모두 끝난 후 1주일 동안은 지하철에서 국제거래법 조문을 보고 다니면서 선택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습니다.

최신판례의 경우 무료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했습니다. 한 번 정리를 제대로 해 두면 이후 2, 3회독을 하는 때에 매우 수월합니다. 마무리 단계(소위 4-3-2-1) 시즌에는 각 과목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 최신판례를 통학하면서 항상 보았습니다.

처음 1차를 준비할 당시 4-3-2-1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과목별로 '정직하게' 회독수를 늘리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법의 경우 '4'를 하는 동안 헛갈리는 이론, 판례, 조문 등을 따로 수첩에 정리하였고, 형법의 경우 이론 부분을 진모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두었으며, 헌법 역시 외위야

할 사항을 따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마무리를 제대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무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방법은 천양지차이고, 반드시 4-3-2-1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4-3-2-1의 방법으로 하되, 설사 진도가 밀리더라도 신속적으로 기간을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마무리 기간에 대한 중압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2011년 2차(재시) 불합격

1차를 치르고 안정권의 점수가 나왔지만 학교에 복학하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신 강의테이프를 구해 민사소송법과 행정법, 형사소송법을 예비순환 대신 해서 공강 때,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공부했습니다.

이후 다시 휴학을 하고 신림동으로 들어가 1순환부터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이때부터 각 과목의 진행 순서대로 후사법과 기본삼법 사례스터디에 참여했는데, 사례를 스스로 풀어보고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1순환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2순환 때에도 학원 일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스테디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3순환부터는 모의고사를 제 시간 내에 쓰는 것에 주력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3순환 중반부터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면서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5월 말에

크게 아프면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결국 시험기간에도 미쳐 4일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1점 차 낙방이었습니다.

3. 재시 불합격의 주원인과 개선

제가 재시 때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시간인 4일 내내 강인하게 버티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날 행정법을 망쳤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시험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과목인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양이 방대하고 따라서 한 시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계속 행정법 기본서를 찾아가면서 정답을 확인하려고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도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3시를 준비할 때는 절대로 정신을 강인하게 키우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였고 실제 시험기간 동안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암기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사법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 뿐 아니라 사례집을 통해 응용력을 길러야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사례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과목의 어느 논의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문장만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시험장에서 불의타가 나오거나, 조금만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제대로 답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3시를 준비할 때는 논의에 대한 문제점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공부했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구해 사례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Ⅲ. 3시 준비와 합격

1. 선택과 집중 - 1차 준비

불합격하고 몇 일 동안은 시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도전했으니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 더 컸고, 다시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시간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집중하고 양을 줄이자는 생각으로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매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각 과목의 기본서는 1차를 준비할 당시 보았던 책들을 그대로 가지고 갔고, 항상 옆에 법전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간 기출문제를 출력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선택과목 역시 국제거래법을 그대로 선택했는데, 시험을 다시 준비하자고 다짐하던 1주일 동안은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주에 동영상강의를 구해 국제거래법을 공부했습니다.

진모는 시간상 불가능했고, 대신에 헌민형을 각 1회독 한 후 다시 민법을 공부하는 시점부터 전범위 모의고사를 같이 풀었습니다. 특히 마킹하는 시간을 제외한 60분을 기준으로 삼아 그 시간

내에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무료강의를 통해 공부했고, 마무리 시점에는 기출문제를 다시 출력하여 각 과목을 공부하는 때마다 풀고 간단히 체크하면서 정리해 나갔습니다.

2. 이번이 마지막이다 - 2차 준비

1차를 치르고 의외로 높은 점수가 나와 고민하지 않고 바로 2차 준비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1주일 동안은 휴식을 취했고 2월 말에 신림동에 방을 구해 3월이 되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3순환은 학원 일정을 그대로 따르는 계획 아래 3일 정도의 여유 기간이 생겼는데, 이 때 미리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것이 그 후의 진도를 소화하는 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모의고사를 치르고 강평을 듣고 나서 복습을 철저히 하고 여유가 된다면 예습을 하는 방법으로 3순환 시점을 매우 빠박하게 보냈습니다(민소법-이창한, 상법-김혁봉, 행정법-류준세, 형소법-신이철, 형법-이재상, 헌법-김유향, 민법-박승수).

모의고사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두 치렀습니다. 이를 통해 답안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재시를 준비하면서 쓰던 펜을 저에게 맞는 펜으로 바꾸고 글씨를 빠르게 쓰는 데 집중하여 연습해 나갔습니다.

민법을 끝으로 3순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기출문제스터디에 참여하여 답안연습을 계속 하였습니다. 학원 일정이 끝나고 보통 답안연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 스터디를 통해 답안지 구성이나 글씨를 빠르게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시 기간에는, 재시를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거의 풀어보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후사법과 기본삼법의 기출문제집을 항상 옆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민법이나 형법의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역시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무조건 기출을 보자고 마음먹고 실천하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4-2-1 시즌에는 그 기간을 수정하여 4-2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제 때에 끝나지 않아 수시로 기간을 변경하기도 하고 하루에 두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일정에 맞추어 나갔습니다. 급기야 한 과목의 경우 0.5의 기간을 할애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 보충을 해 나가는 식으로 마무리를 이어갔습니다.

시험 기간인 4일 동안에는 각 과목당 정리해두었던 내용을 모두 보고 가자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시 때 겪었던 멘탈붕괴를 절대로 겪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곳곳이 버텼습니다. 마지막 민법 3문의 마침표를 찍고, 내용을 정리하고, 답안지를 제출했던 그 순간까지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끝까지 되새겼습니다. 결과는 운이 좋게도 합격이었습니다.

IV. 나오며

2차 시험이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시 불합의 그 순간이 생생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수도 없이 자기 최면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최면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간의 고통이 모두 눈녹듯 사라지더군요... 지금도 제가 연수생이 된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도전하여 이루어내기까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부모님,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감사해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외에 제 수험생활 동안 많은 도움이 되 주었던 친구들과 선, 후배님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는 내내, 매 순간마다 떠올리던 문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공부하는 순간마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드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피로워하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것이 수험생의宿命이라면, 그냥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매우 힘들겠지만요(사실 저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 이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합격기를 쓰게 해 주신 고시계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를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